

전남행복버스, 272개 마을 돌며 8700명에 보건·문화 서비스

자원봉사자·협업기관 등 참여 성과 공유

오지마을 방문 현장중심 복지모델 안착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올해 272개 마을을 돌며 8700명의 도민에게 보건·문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8일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전남행복버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 운영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협업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능기부자 원봉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과 성과 보고, 내년도 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전남행복버스는 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복지 사업이다. 인바디 검사와 이·미용, 국악 공연 등 총 26종의 보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72개 마을을 방문해 총 7만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18일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전남행복버스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18일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전남행복버스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제공했다.

영하고, 올해부터는 보행보조기 수리·세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반응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 연인원 1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출연기관과 민간단체, 학교 등과 70여차례 협업을 진행해 서비스 범위와 완성도를 높였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남행복버스가 도내 곳곳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35개 마을을 찾아 3만 명이 넘는 도민에게 23만여 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 만족도는 99%에 이르며, 전남도의 대표적인 현장 밀착형 복지·문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함평군체육회,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생활체조' 발표회

9개 읍·면 복지회관·경로당 군민 500명 참석

군민 건강증진·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장 마련

함평군체육회는 최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2025년 함평군체육회 생활체조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생활체조를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도한 9개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군민 50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생활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발표회를 통해 체조의 즐거움과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시사식에서는 참여자 중 최고령자인 나산면 축동경로당 노우순 어르신(92세)이 최장수상을 생활체조 교실에 참여해 부부의 정과 행복을 더욱 쌓고 있는 나산면의 배경길, 김인순 부부가 행복상을 수상했고, 생활체조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삶과 생활을 하시는 월야면 장영례 어르신(91세), 엄다면 김덕순 어르신(91세), 손불면 정복에 어르신(91세), 월야탈밭이문화센터 김정녀 어르신(91세)이 건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종희 함평군체육회장은 "3회째를 맞는 생활체조 발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생활체조 발표회를 통해 모두가 화합해 함평군 체육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정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생활체조 동호인



함평군체육회는 최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2025년 함평군체육회 생활체조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함평군체육회는 최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2025년 함평군체육회 생활체조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회를 통해 모두가 화합해 함평군 체육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정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생활체조 동호인

및 함평군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최일관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18일 광주남구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 남구청공무직노조, 오영순 의원에 감사패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18일 광주남구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 존중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공무직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했다.

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 존중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동구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개인·우수단체 시상

광주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최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올해 동안 주진한 새마을운동을 종합결산하고 분석·평가 했다. 또 향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시상도 이뤄졌다.

기영호 동구협의회 회장에 대한 대통령

훈장 수여와 박명자 서남동부녀회 회장의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비롯해 27명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개인 시상, 우수단체 시상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발판을 확인했다.

김대영 광주시 동구새마을회장은 "올 한해 동안 함께 새마을운동에 함께한 새마을지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봉사와 화합을 동력으로 삼아 건강한 새마을을 가꾸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시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인사

전남교육청

◇3급 승진
△행정국장 이선국 △나주도서관장 김의곤

◇4급 승진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김전호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오병환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문세경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김경곤

◇4급 전보
△노사안전과장 박상길 △총무과장 강성근 △행정과장 최현 △재정과장 한종덕 △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장 벽윤섭 △고등학교 교육연수원 오준현 △정책기획과 교육협력관 파견 서용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협력관 파견 흥경석

◇5급 승진
△교우연수원 김윤실 △고흥생태교육관 김철성 △중학교 허영숙 △순천여고 이현일 △봉황고 곽지희 △고흥산업과학고

정심 △녹동고 김경훈 △해남고 김수안 △무안고 김미선 △전남체고 박성범 △진도실고 김남현 △광양햇살학교 흥종화 △한국교원대 파견 정명율 △한국교원대 파견 박지영 △순천대 파견 양동근 △목포도서관 위운아

◇6급 교육지원과장 과장 신규 보직 및 전보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경주 △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윤종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경순 △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학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백수호 △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여순철 △신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병문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현아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상배

◇5급 본청팀장 전보
△정책기획과 노진현 △정책기획과 김영미 △노사안전과 양하승 △노사안전과 노충심 △유초등교과 고상진 △체육건강과 나방주 △총무과 임미숙 △총무과 조

해순 △예산과 손인권 △재정과 김화정

◇5급 산하기관 전보

△자연탐구원 박민호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박경은 △목상고 김민호 △순천공고

고 최현영 △순천미래과학과 이동희 △전남과학과 박이재 △전남미용과 김영권

△담양공고 김난의 △구례고 오정미 △벌교고 이건주 △회순고 선문순 △해남공고

고 이경수 △장성여고 김윤기 △한국교원대학 파견 김정운 △한국교원대 파견 김재하 △학생교육원 김용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심상미 △나주도서관 조정희 △광양도서관 서유경 △보성도서관 임보미

△영광도서관 윤하진

◇6급 본사처(실)장

△비서실장 오민석 △준법경영실장 박정진

△감사실장 김봉덕 △기획처장 박정률

△전력시장처장 이정호 △요금전략처장

△인사처장 연원섭 △총무과 임미숙 △총무과 조

생조달처장 김성호 △정보보안처장 정강식

△배전운영처장 과상영 △영업처장 이호운

△AI혁신단장 주재각 △기술기획처장 김경훈 △에너지사업처장 심은보

△계통기획처장 곽은섭 △계통기술실장 최명환 △해외사업운영처장 정홍규 △해외사업리스관리실장 최종호 △해외원전개발처장 한승훈 △UAE원전건설처장 김의승

△해외원전운영실장 청진수

△1차 사업부장

△인천본부장 이상원 △경기북부본부장

박종운 △경기본부장 정학준 △강원본부

부지 이철규 △충북본부장 오현진 △경북

본부장 이상업 △부산본부장 조현진

△전력기자재부지장 위국 △인재개발원

장 최현근 △경영지원처장 백수현 △영업

배전시스템실장 이명종 △전력연구원장

김대한 △전력기자재센터장 이창열 △경

인건설본부장 배병렬 △중부건설본부장

김재오 △남부건설본부장 노상수 △해외

발전엔지니어링처장 강구화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수식을 경

량화하는 데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대 AI융합대학 지능실감

미디어융합전공 김동민 학생도 같은 대회

배틀트랙에서 3위를 수상하며 200달러의

상금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

속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 상금을 배

출하며, 학부 중심의 AI 교육과 연구 성과

를 재인증했다.

김만제 지도교수는 "앞으로도 학생들

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대 김준성 학생, 국제 AI 경진대회 우승

IEEE Conference on Games 챔피언십 트랙 '정상'

전남대학교는 18일 "수학·인공지능 복수전공 4학년 김준성 학생·사진(지도교수 김만제)이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김준성 학생은 지난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IEEE 캐퍼런스 온 게임스' 학회 내 VGC AI 대회에 참가해 '챔피언십 트랙' 우승을 차지했다. 또 '배틀 트랙'에서도 2위에 오르며, IEEE 전산지능학회(CIS)로부터 총 8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 상금을 배출하며, 학부 중심의 AI 교육과 연구 성과를 고려해 짧은 연산 시간 내 높은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수식을 경량화하는 데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대 AI융합대학 지능실감